

지역 소식통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소방서, 소방합동 훈련

부안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지난 10일 상하수도사업소 건물 화재 발생 시 초기진화와 대피 등 비상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부안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사업소 내 화재 발생 시를 가정하여 신고, 초기 진화, 인명 대피 훈련, 응급환자 구조, 소방차 출동 진화 등 다양한 상황에 신속한 대응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소 전직원들이 훈련에 참여하였다.

훈련에 참여한 직원은 "부안 소방서와 함께하는 훈련이었던 만큼,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철저히 숙지하고 비상시 대처 방법을 숙지하였으며 합동 소방 훈련 후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앞으로 가족 등 주변의 위급 상황에 즉시 대응하도록 배우는 기회가 된 것 같다"라고 말하였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26일부터 제17회 평생학습축제

정읍시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정읍시문화회관 일대에서 제17회 정읍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한다.

평생학습축제는 시가 2006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는 행사로, 올해로 17회를 맞았다.

이 축제는 평생학습동아리와 평생학습 유관기관, 단체들이 함께 참여해 그동안 배운 습지를 발표하고,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로 자리매김해 왔다.

축제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후 2시 연극, 녹두 공연 등 총 15개 팀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인다.

또한, 26일과 27일 양일간 무지개동아리'를 비롯한 27개 팀이 전시와 체험행사를 진행하는 흥보·체험관이 운영된다. 이곳에서는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식재료 · 스타셰프가 만든 결실

시 · 이원일 셰프, 버섯돈육갈 · 등뼈버섯콩탕 등 특화먹거리 19일 출시

정읍시가 내장산 단풍철을 맞아 스타셰프 이원일과 함께 개발한 특화 먹거리를 선보인다.

시는 '냉장고를 부탁해' 등으로 유명한 스타셰프 이원일과 개발해 온 2개의 메뉴를 19일부터 판매한다고 17일 밝혔다. 첫선을 보이는 메뉴는 버섯돈육갈과 등뼈버섯콩탕이다.

이번 신메뉴는 정읍에서 생산된 최고의 식재료인 돼지고기, 콩, 버섯을 활용해 이원일 셰프와 시가 함께 개발한 것으로, 올 단풍시즌에는 총 8개 음식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두 음식 모두 판매하는 업소는 명인관 · 전라회관 · 한국관 · 햇살 등 4개 소이며, 내장산회관 · 전통종가집 · 정원한정식 · 태평화관 4개소에서는 버



섯돈육갈만 판매한다. 이외 3개 업소는 준비과정을 거쳐 올 겨울부터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당초 15개 업소가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3차 교육 등을 거치면서 4개 업소가 포기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버섯돈육갈'은 돼지등뼈로 우려낸 육수에 쫄깃한 생강국수를 더한 요리

다. 정읍에서 난 고소한 돼지고기와 신선한 버섯이 듬뿍 들어가 있어 깊은 맛을 자랑한다. 특히 육개장에서 흔히 쓰이는 소고기 대신 돼지고기를 사용해 맛과 가격 모두에서 관광객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다. 고명 또한 넉넉해 양과 질 모두를 살린 메뉴라는 평가다.

'등뼈버섯콩탕'은 돼지등뼈 육수에 물에 불린 콩을 갈아 진한 콩물을 조리 직전 넣어 끓인 전골 요리다. 구수한 콩의 향과 돼지등뼈의 풍미, 신선한 버섯이 어우러져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이다. 시는 이 두 메뉴가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미식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제286차 전북자치도 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 개최

고창군의회, '한빛원전 인근 지역 어민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안' 등 4건 안건 채택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의회(의장 조민규)는 17일 힐링카운티(석정) 홀론아트홀에서 '제286차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를 개최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장협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의 시군의회 상호 간 교류와 협력 증진을 통해 공동 관심사에 대한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협의체이다.

이날 회의에는 조민규 의장 및 10명의 고창군의회 의원과 삼덕읍 고창군수가 참석해서 10개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장들을 환영하였고, 고창군의회 조민규 의장을 비롯한 11개 시군의회 의장들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결의안 채택 및 공동발전 방안 등에 대해 함께 토론했고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



졌다.

특히 이번 월례회에서는 고창군의회 조민규 의장이 제안한 '한빛원전 인근 지역 어민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안'을 비롯하여, 진안군의회 「지방의정동우회, 법률 근거 마련 촉구 건의안」,

남원시의회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시유치 촉구 건의안', 부안군의회「지방자치단체 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등 총 4건의 안건이 채택되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악취배출사업장 1000개소... 악취저감 동참 시장 서한문 발송

정읍시가 해마다 증가하는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악취 배출 사업장 1000개소에 악취 저감을 위한 자발적인 동참을 호소하는 시장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서한문 발송은 악취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특

히 사업장의 시설 개선 없이는 악취 저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업주들의 협력을 촉구했다.

시는 각 사업주들에게 악취 배출 수치를 정기적으로 자가 측정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악취 저감을 위한 설비 투자와 시설 개선을 철저히 이행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학수 시장은 "쾌적한 생활환경은 주민들의 기본권으로, 이를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축사 현 대화, 퇴비 발효 촉진, 악취 배출 저감 시설 설치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해 악취 저감에 노력하고 있지만 사업장의 자발적 악취 저감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 16일 10월 첫 현장 방문으로 당현마을~체육공원 연결도로, 솔티생태관광 방문자센터, 정읍문화유산 방문자센터, 무성서원 유교수원원 등 4개 사업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모든 사업 시민 행복 · 편의 위함”

이학수 정읍시장, 10월 첫 현장 점검... 주요 사업 속도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 16일 10월 첫 현장 방문으로 당현마을~체육공원 연결도로, 솔티생태관광 방문자센터, 정읍문화유산 방문자센터, 무성서원 유교수원원 등 4개 사업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준공 이전의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성과 창출을 위한 발걸음으로 이어졌다.

이 시장은 9월에도 5차례 현장 방문을 진행하며 주요 사업에 대한 점검을 이어왔으며, 이번 10월 첫 방문 역시 시기적절한 대응을 통해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첫 번째로 방문한 당현마을~체육공원 연결도로 공사 현장에서 이 시장은 "통행인들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고려해 회전자차로의 노선 설계와 인도 옆 옹벽의 콘크리트 마감 처리를 꼼꼼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솔티생태관광 방문자센터를 찾아가는 '외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효과적인 방송 홍보 방안'을 검토하리"고 지시했다.

무성서원 유교수원원 건립 현장에서는 숙소 건축에 대한 세심한 지침이 이어졌다. 이학수 시장은 "2층 숙소 건축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고급화 전략을 세우고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차별화된 시설이 되도록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방문한 각 사업장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모든 사업이 시민의 행복과 편의를 위한 것을 감안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빛과 색으로 물들이는 도시... 고창군 '변신 중'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빛 연출을 통해 도시 전체를 색으로 환하게 밝히고 있다.

지역의 랜드마크 '고창읍성'은 전체 성곽 둘레 1684m를 포함, 관아건물 9동 전체 566개의 경관조명을 설치해 성곽 내 · 외부를 비추는 방식으로 화려하면서 은은한 조명으로 조선의 건축미와 조형미를 맞출 수 있다.

얼마전 마무리된 '제1회 모양성제'에서도 큰 호응을 얻은 '빙종죽립아트쇼'는 매주 금 · 토요일 저녁에 관광객들에게 최고의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다.

빙종죽립 아트쇼는 음성 인콰 울창한 대나무숲에서 AI 기술을 기반으로 고창의 계절과 날씨 정보를 통해 연출



된다.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신내음과 신비한 소리, 알록달록 레이저쇼가 더해진 대나무숲의 아름다운 야경을 즐길 수 있다.

고창군 관문에 세워진 '세계유산도시 조형물'도 도시의 경관을 새롭게 한다. 정읍에서 고창으로 진입하는 흥덕대학교차로 사거리에 멋진 조형물이 세워졌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